

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메트 강화 방안

신청만 기다리지 않고 먼저 찾아내 동겠습니다

위기가구가 직접 신청해야 움직이는 복지에서 벗어나,
먼저 찾아 연결하고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합니다.



1 발굴 단계 위기 신호를 빨리, 세심하게 찾습니다

체납 전부터 생활변화 감지

- 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정보¹⁾
 - 매월 입수
- 전가·수도 등 사용량 변화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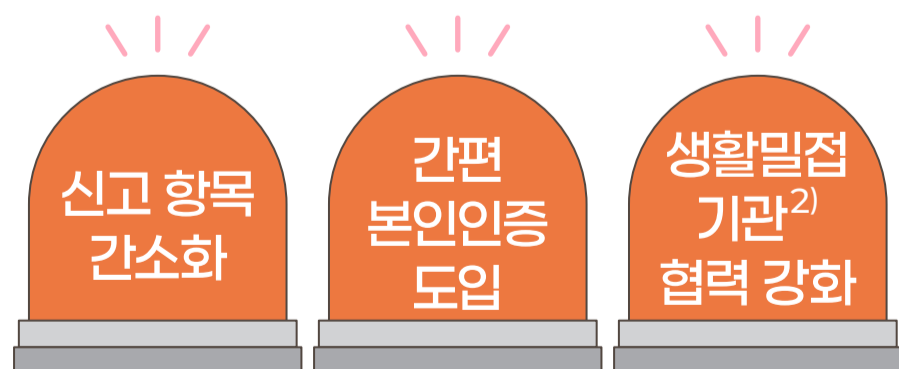


반복·중첩 위기가구 우선 관리

- 연 2회 이상 반복 발굴 가구
 - 담당 공무원 알림
- 복지사각지대 & 위기아동 & 고독사 위험
 - 우선 방문, 집중 관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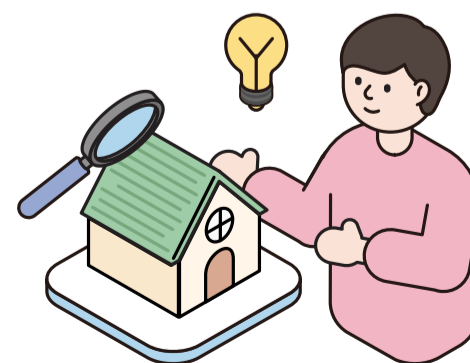
쉽고 빠르게, 위기상황 알리기



🔊 '복지위기알림앱' 기능 개선

가족돌봄 위기 데이터 탐지

- 장기요양 정보 지방자치단체 공유
- 통합돌봄 대상자 모니터링



2 개입 단계 신청하지 못해도 필요한 지원은 먼저 닿게 합니다

[자동 지급]

- 연령 등 자격 확인이 가능한 급여는 자동 지급

* 아동수당, 부모급여, 첫만남이용권

예) 출생신고 = 수급권 발생

→ 자동지급

- 기존 정보 활용으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급

예) 장애인연금 수급자

65세 도래

→ 기초연금 자동지급

[직권 신청]

위기 상황 시 담당공무원 직권 신청, 선제 지급



[방문상담 문턱 낮춤]

최초 가정방문 상담

→ 희망드림 꾸러미¹⁾ 제공



3 지원·관리 단계 소득·돌봄·심리 지원을 제공합니다

지원 기준완화

- 긴급복지¹⁾ 위기사유 확대
- 기초생활보장 자동차 재산산정기준 개선 검토²⁾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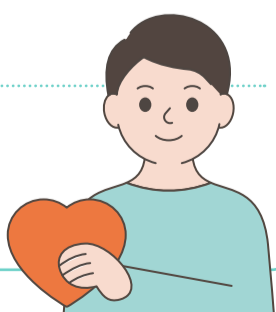


아동돌봄 공백 해소

- 취약가구 아이돌봄서비스(12세 이하)³⁾ 시간 확대 (2025년) 960시간 → (2026년) 1080시간
- 긴급·일상돌봄 서비스⁴⁾ 대상 확대 (2025년) 19세↑ → (2026년) 13세↑
- 아동 양육자 대상 형사절차 전반에서 아동보호 강화

노인돌봄 가족 부담 ↓

- 단기보호⁵⁾ 인프라 확충
- 가족휴가제⁶⁾ 활성화
- 보호자 정서지원 등 치매가족 지원 확대⁷⁾



심리적인 위기 지원

- 자살예방센터 적극 개입, 조치
- 경찰·소방-자살예방센터 정보 연계



4 업무 지원

현장 중심 적극행정 지원으로 복지 대응을 강화합니다.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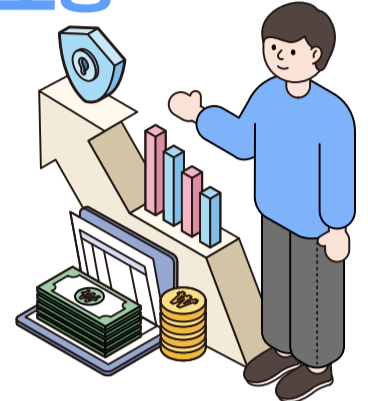
읍·면·동 현장인력 점진적 확대

읍·면·동 복지 담당 인력 단계적 증원 추진
→ 가정방문·상담 활성화



적극 행정하면 적극 보상

위기가구를 끝까지 지원한
우수사례 발굴 → 포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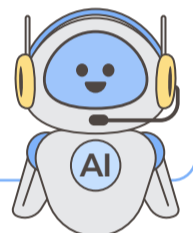


복지 공무원 현장 대응 역량 강화

- 기본 역량 전문교육 강화
- 간편 매뉴얼 배포
- 소진방지 프로그램 지원

AI 상담·조사·관리

- 정서 공감 기반 생성형 AI 상담
- 대국민·공무원 복지업무 지원 AI 활용



알기 쉬운 복지용어

[발굴 단계]

- 1) 위기정보: 단전·단수·가스 공급 중단, 건강보험료 체납, 실업급여 수급자, 휴·폐업자 등 47종
- 2) 생활밀접 기관 협력: 아·통장, 전기·수도·가스 검침원, 교직원, 경찰·소방 등

[개입 단계]

- 1) 희망드림 꾸러미: 최초 방문 상담 시 대상자에게 생활 물품(식료품, 생필품 등) 지원

[지원·관리 단계]

- 1) 긴급복지: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·의료·주거 등을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
- 2) 자동차 재산산정기준 개선: 우선 다자녀, 농어촌(89개 인구감소지역) 등 차량 필요도가 큰 경우 소득환산율 기준 완화 검토
- 3) 아이돌봄서비스: 12세 이하 아동을 보호·양육하기 위해 아이돌봄사가 주거지 등에 직접 찾아가는 돌봄서비스
- 4) 긴급·일상돌봄 서비스: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공백이 있거나 돌봄이 필요한 청·중장년, 가족돌봄청년에게 재가돌봄, 가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
- 5) 단기보호: 보호자 부재 시 어르신이 보호시설에서 일정 기간 머무르며 돌봄을 제공받는 서비스
- 6) 가족휴가제: 돌봄가족의 휴식을 위해 어르신이 단기보호나 종일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
- 7) 치매가족 지원 확대: 치매안심센터 보호자 정서지원 프로그램 다양화, 간병 노하우 전수(멘토링 노인일자리 도입)